

문의: 02-2004-82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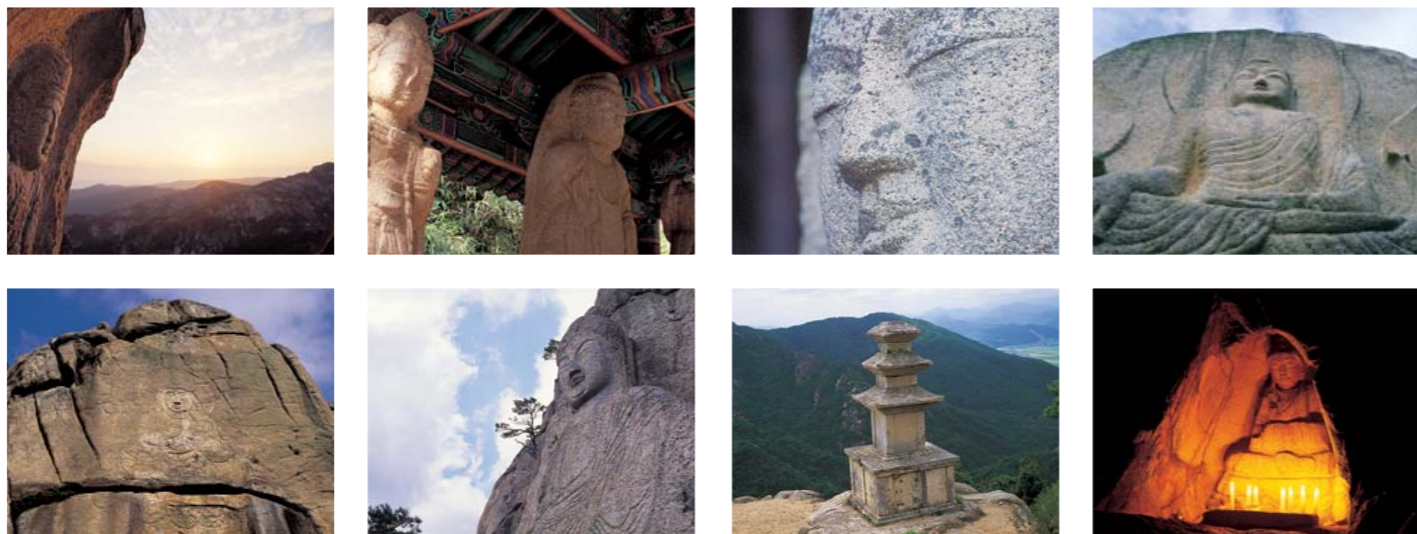
희상 스님의 금강경 이야기
하나로 돌아가기
작품: 희상 스님 크기: 30.5 x 3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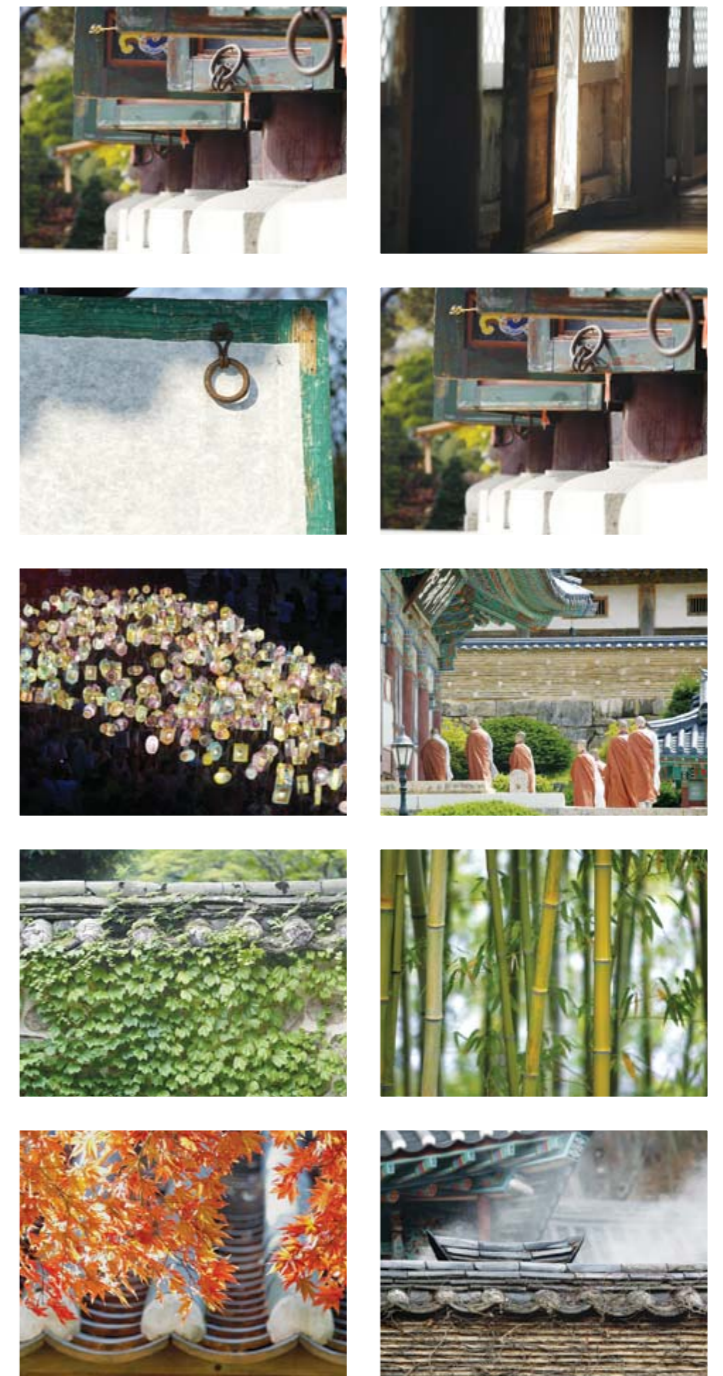
현대불교신문 새로운 2008 달력

불기 2552년 (2008) 무자년
NEW CALENDAR
현대불교신문사에서 독자적으로 불기 2552년 (2008) 무자년 달력을 제작하였습니다. 가장 불교적이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담아 제작한 달력으로 한층 고급스러움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불국정토 남산 사진: 고영배 기자 크기: 26.5 x 26.5



절의 미학 사진: 박재완 기자 크기: 26.5 x 26.5



沈香과 白檀의 순수함으로 사용하시는 이의
價値와 品格을 더욱 높여 드릴 것입니다.

순수 침향만을 사용한
명향심공침향



“최고의 향”이라고 불리우는沉香
沉香은 예로부터 국왕과 고급관료만이
사용할 정도로 매우 귀한 향으로
그 향의 효과와 향으로서의 價値는
이후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이런沉香의 고귀한 느낌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자 명향심공침향에 다른 향재는
전혀 첨가하지 않고 침향 자연 그대로의
순수함을 정성들어 담았습니다.

이런 침향의 깊고 순수한 맛을
명향심공침향을 통해서 느껴보세요.

침향은 진정효과가 있어 예로부터 한약재로도
사용되어져 왔으며, 최근 향료로서의 효능도
널리 알려지면서 침향의 수요가 급증해
희소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100% 천연 침향, 백단을 사용하여 건강에 유익하며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본 향은 100% 천연 재료만을 사용하여 정신을 맑게 하고 심신을 북돋아 주어 인체에 해가 없는 유익한 향으로서
사찰과 거실, 공부방 또는 영상, 오가 등 마음의 안정을 필요로 하는 시간에 사용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제품규격 - 장27x23x25mm(약 50분 연소)/간37x15x32mm(약 25분 연소)

부드럽고 달콤한 백단의 향
명향일광백단



일광백단은 부드럽고 달콤한 향으로
오랫동안 사랑 받아 왔던 白檀만을
사용한 천연향으로 여러분에게
진정한 백단의 맛을 전해 드릴 것입니다.

백단은 동양적인 향조의 기본이 되며,
30년 이상 자란 나무에서 직경 3cm 정도의
심부층이 생겨나고 이 심 부층에서 나는 향이
백檀 고유의 향으로, 향을 제조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향재이다.

無첨가·無색소
100%천연향재사용

화사한 수련의 향기 - 화노시

花の詩

2007년
민복향당 신제품

연꽃의 향기는 영원한 시의 노래처럼..

백단 30%와 로즈, 바이올렛, 재라늄 등이 주요 성분으로 화사한 수련의 향기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백단을 기본으로 한 꽃가루의 달콤함과 화사한 향기가
꽃이 둘러싸여 있는 듯한 은화함과 평온함을
느낄 수 있는 선향입니다. “화노시”는 문화와 전통을
현대에 계승하고 있는 일본향당의 수준 높은 향조기술과
엄선된 원료를 사용하여 일본향당과 한국의 민복향당이
공동으로 연구/개발한 선향입니다.

제품규격 - 장: 33x36x30mm(약 50분 연소)/35g
- 중: 84x15x33mm(약 25분 연소)/60g
- 단: 65x15x28mm(약 20분 연소)/14g



민복향당